
한국형 녹색채권 관리체계

2025. 9

한국 산업은행



목 차

I. 회사 소개 및 녹색채권 개요

II. 관리체계 목적

III. 자금의 사용

IV. 지원대상 사업 평가 및 선정절차

V. 자금의 관리

VI. 보고

VII. 기타 사항

1.1 회사 소개

한국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산업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1954년 설립되었으며, 전후 경제재건 주도, 국가 성장동력 확보, 시장 안전판 역할 수행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통해 산업과 국민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 ◆ 전화번호 : 02-787-4000
- ◆ 홈페이지 : www.kdb.co.kr
- ◆ 담당부서 : 자금부(원화조달팀)

1.2 지속가능경영(ESG경영)을 위한 노력

한국산업은행은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및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국가 기후금융은행」을 목표로 녹색산업 지원강화 및 녹색생태계 확산을 주요 업무추진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당행은 상기의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사회 정책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녹색사업에 대한 금융주선 업무 확대를 위해 '16년 국내 최초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행 기구 인증 획득, '17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환경·사회 위험관리에 관한 금융업계 국제 모범규준인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채택 및 동 원칙을 「환경·사회 검토 및 관리 지침」으로 내규 제정하였습니다.

‘21년 녹색금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녹색 중점지원분야 선정 및 녹색금융 전용 상품 라인업 강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18년 국내 최초 원화 녹색채권 및 사회적채권 발행을 시작으로 ESG 채권을 상시 발행하고 있으며, ‘20년 국내은행 최초로 녹색채권의 자금사용내역 외부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1년 환경부와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2년 환경부에서 주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행은 지속적인 녹색채권 발행은 물론, 대표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분야 자금지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실천하여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1.3 녹색채권 개요

한국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6대 환경목표(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 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전)와 연계한 4대 중점지원 분야(①에너지 전환, ②산업구조 저탄소화, ③녹색 소부장 육성, ④친환경사회 조성)를 선정하고 맞춤형 녹색금융 상품을 조성하여 친환경 녹색 분야에 대한 양질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친환경 녹색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1.4 본 관리체계의 향후 적용

본 관리체계는 향후 한국산업은행에서 환경부·금융위원회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의거 국내에서 발행하는 한국형 녹색채권에 적용됩니다.

II

관리체계 목적

본 관리체계는 환경부·금융위원회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4대 핵심요소에 맞춰 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관리체계의 4대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환경부·금융위원회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 자금의 사용
2. 지원대상 사업 평가 및 선정절차
3. 자금의 관리
4. 사후 보고

3.1 자금의 사용

한국산업은행은 본 관리체계에 따라 발행한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녹색 프로젝트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 녹색채권 발행자금 배분대상 기준 】

- 1) 발행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개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 기표된 지원대상 녹색 프로젝트
- 2) 발행일 이전 약정되었으나, 발행일 이후 기표가 예상되는 녹색 프로젝트
- 3) 발행일 이후 약정 및 기표 예정인 녹색 프로젝트

3.2 녹색 프로젝트 유형

한국산업은행은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녹색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녹색채권 발행자금을 배분할 예정이며, 녹색 프로젝트 유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녹색 프로젝트 유형(예시) 】

분야	녹색경제 활동	세부내용 및 예시
산업 [녹색부문]	▪ 혁신품목 제조,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등 8개 경제활동	▪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을 생산하거나 혁신품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하는 활동 등 ▪ 아래 대상기술에 필요한 설비 구축·운영 등 [대상] (1)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2)수소환원제철, (3)비탄산염, (4)혼합시멘트, (5)불소화합물(F-gas; Fluorinated gases) 대체 및 제거

분야	녹색경제 활동	세부내용 및 예시
연구개발 [녹색부문]	▪ 연구·개발·실증	▪ 녹색분류체계 녹색부문에 포함된 활동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실증
발전·에너지 [녹색부문]	▪ 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에너지, 수열에너지) 등 19개 경제활동	▪ 아래 대상에너지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전력이나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생산설비 구축·운영 등 [대상] (1)태양광, (2)태양열, (3)풍력, (4)수력, (5)해양에너지, (6)지열에너지, (7)수열에너지
수송 [녹색부문]	▪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등 3개 경제활동	▪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생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 등
도시·건물 [녹색부문]	▪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등 4개 경제활동	▪ (1)신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를 개발하거나, (2)기존 도시를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를 개발·운영 등
농업 [녹색부문]	▪ 저탄소 농업 등 2개 경제활동	▪ 식량, 채소, 과일, 화훼 작물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방법 적용 등
이산화탄소 포집 [녹색부문]	▪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등 4개 경제활동	▪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 구축·운영 등
기후변화 적응 [녹색부문]	▪ 기후변화 적응 핵심 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등 5개 경제활동	▪ 아래 기후변화 적응의 핵심기술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구축·운영 등 [대상] (1)재난 방지시설·시스템, (2)기후 예측시설·시스템
물 [녹색부문]	▪ 하·폐수 관리 등 8개 경제활동	▪ 하수, 폐수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정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 등
순환경제-생산 [녹색부문]	▪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등 3개 경제활동	▪ 재생원료 또는 순환자원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등
순환경제-소비 [녹색부문]	▪ 다회용기 활용 등 2개 경제활동	▪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

분야	녹색경제활동	세부내용 및 예시
순환경제 _관리 [녹색부문]	▪ 폐기물 수거·회수·선별·분리 등 2개 경제활동	▪ 폐기물의 수거·회수 또는 선별·분리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등
순환경제 _재생 [녹색부문]	▪ 폐기물 재사용 등 7개 경제활동	▪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사용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등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녹색부문]	▪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등 3개 경제활동	▪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자상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사전 예방·저감, 처리,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 시설을 설치·개보수·운영 등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녹색부문]	▪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등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확산방지·제거, 수거·처리하는 장비, 시설을 설치·개보수·운영 등
토양오염 방지 및 처리 [녹색부문]	▪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 토양오염 방지 또는 오염된 토양 정화 또는 정화토를 활용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생물 다양성 [녹색부문]	▪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복원 등 4개 경제활동	▪ 육상생태계 및 보호지역, 해양생태계 및 보호지역의 보호·보전·복원을 위한 활동 등
산업 [전환부문]	▪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설비 구축·운영 등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발전· 에너지 [전환부문]	▪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등 4개 경제활동	▪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또는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 구축·운영 등 *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 부생가스,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한 가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감안하여 2030~2035년까지 공사계획을 인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수송 [전환부문]	▪ 친환경 선박 건조 등 2개 경제활동	▪ 친환경 선박의 건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 등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당행의 녹색 프로젝트는 상기 경제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모든 녹색경제활동(84개)을 대상으로 하며, 녹색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모든 경제활동(84개)에 사용이 가능함

금융 주관부서는 정부정책과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다양한 여신상품 중에서 기업의 필요에 맞는 상품으로 여신업무를 진행합니다. 금융 주관부서는 여신적격여부, 계획사업에 대한 예비검토 후 심사 주관부서 앞 부의하여 해당 여신에 대한 금융지원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해당 여신이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적용대상 계획사업인 경우 「환경·사회 검토 및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환경·사회 주관부서 앞 환경·사회에 대한 영향검토를 요청하고, 환경·사회 주관부서가 검토한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지원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환경·사회에 대한 영향검토는 적도원칙 적용대상 계획사업의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이행을 약정하는 등 차주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정의 환경 기준 및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도록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녹색채권 발행 주관부서는 상기의 절차로 승인된 여신 중에서 Ⅲ. 자금의 사용에 부합하는 여신(프로젝트)을 녹색채권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환경·사회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합니다.

5.1 자금의 관리·운용

한국산업은행은 선정된 지원대상 프로젝트에 대해 녹색채권 발행자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관리·운용합니다. 선정된 프로젝트의 금융 주관부서가 내부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녹색채권 발행 주관부서는 재원을 배분합니다. 재원 배분 이후, 행내 모니터링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추적 및 검토합니다.

5.2 미사용 자금의 관리

발행주관부서는 미사용된 발행자금에 대해 내부 자금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단기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합니다.

아울러, 발행주관부서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배분 금액이 녹색채권 조달자금과 일치하는지와 당초 계획과 달리 미사용 자금이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6.1 사후(연례) 보고

한국산업은행은 녹색채권 발행 후 차년도부터 자금배분 완료 전까지 자금배분, 환경개선 영향(필요시)을 포함한 사후(연례) 보고서를 연 1회 이상 당행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자금배분이 미완료 되는 경우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정보를 포함하여 사후 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중요 변동사항 공시항목(예시)

- 자금 사용 계획 변경 및 그 사유 기재
- 미사용 자금 현황

6.2 사후(최종) 보고

한국산업은행은 녹색채권 발행 후 자금배분 완료시점에 자금배분, 환경개선 영향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여부 등을 포함한 사후(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검토기관의 검토를 받고 이를 당행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ESG채권 정보플랫폼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본 관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독립된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를 받았습니다.

본 관리체계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관리체계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재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본 관리체계 및 외부전문기관의 검토보고서는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ESG채권 정보플랫폼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